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젠더 연구*

권 귀 숙**

- I.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젠더화
- II. 전쟁/제노사이드와 여성 연구- 왜 젠더인가?
- III.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여성의 역사
- IV. 제주4·3의 여성 경험과 젠더 이슈
- V. 젠더 연구의 방향

국문요약

이 글은 제주4·3사건에 관한 학술적 글을 젠더의 관점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정부차원의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여성을 주요 변수나 주제로 다룬 글이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여성이 하나의 연구 집단이 아닌 노약자의 일부로 주로 기술되어 있다. 여성의 역사에 관한 비중이 적으며, 여성의 인권유린 사건 등은 토벌대의 가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제주4·3특별법 제정 등, 이행기 정의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념적 중립성에 기초한 사건의 정의, 좁은 의미로 규정된 ‘희생’의 개념 등이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축소화시켰

* 이 연구는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10-DZZ-3104)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2013년 11월 1일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주 4·3과 여성에 관한 학문적 체계 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당시 토론을 담당하신 김종민 전 4·3전문위원과 이 글을 심사하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강사 및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다. 보고서의 상호검증 방식 등도 여성의 사적 경험의 기록을 제한시켰다. 한편 여성관련 글은 여성의 저항, 성폭력, 의례, 연대, 문화적 재현 등을 다루었고, 특히 여성의 몸을 국가폭력의 기호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연구 실적의 부족과 실증적 조사의 한계로 여성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은 상당부분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4·3 연구에서 젠더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제주4·3, 이행기 정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젠더 연구

I.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젠더화

이 글은 4·3의 새로운 역사에서 여성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4·3 전후의 여성의 삶을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4·3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학술작업에서 여성의 기억의 역사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전쟁이나 제노사이드 연구에서 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남성중심적이거나 젠더 이슈를 간과한 점을 비판하고, 여성의 참여, 노동, 피해 등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또한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 작품에서 젠더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젠더 연구는 전쟁/제노사이드의 과거를 더욱 온전히 이해하고 계승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서 대규모 폭력 사건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4·3의 진상규명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언론, 학계, 예술계 등 여러 분야에서 4·3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증언을 채록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예술로 표현해 왔다. 특히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가 2003년에 발간되었고,¹⁾ <제주4·3평화기념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관> 이 2008년에 건립되었다. 그 결과 진상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관련 학술적 연구는 4·3의 ‘사실’과 ‘진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역사로 인정받고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와 문화운동은 4·3을 직접 겪지 못한 세대에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포스트메모리 (postmemory)의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 그러므로 이제 4·3의 기억이 역사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억의 역사화 과정에서 특정 기억의 선택, 역사적 평가, 기호화 등에 의해 여성의 삶이 재조명되기도 하지만, 이 조명의 렌즈에 따라 젠더의 역사가 다시 쓰여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서 4·3의 진상규명과 ‘이행기 정의’³⁾ 과정에서 여성의 어떤 경험이 공식화되고, 또 어떤 경험은 망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이유도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젠더 연구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젠더의 개념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과 생물학적인 성을 함께 의미한다. 또한 공식역사는 사회와 국가가 인정하는 과거에 대한 기록의 의미로 사용된다.⁴⁾

연구 대상은 진상규명 글 중에서 권위, 대표성, 공식성 등을 고려하여 1) 4·3의 공식역사의 교과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2) 여성을 주요 변수나 주제로 다룬 학술적 글로 선택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정부차원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 6개월의 심의기간을 두고 오류를 검증하는 등 4·3의 공식 기록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⁵⁾ 또한 영문판 발간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영향

2) Postmemory란 허쉬 (Hirsch)가 발달시킨 개념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을 직접 겪지 못한 세대가 다양한 경로 (책, 기념관, 사진 등)를 통해 전송받은 기억을 말한다. Marianne Hirsch, *Family Frames: Photography, Narrative, and Postmem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3) 이행기 정의는 transitional justice를 번역한 것이다. 번역 용어가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나, 법학, 사회학 등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유엔에 의하면, 이행기 정의란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한 사회가 책임, 정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수립 하는 것”을 말한다.

(UN Secretary General,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2004).

4)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14년 1월 10일 검색).

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젠더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아니나, 4·3의 진실찾기 50년의 결실을 대변하는 역사적 기록이므로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관련 논문 등은 학계의 권위를 지닌 연구로서 여성의 어떤 경험을 강조하고, 설명하며, 기호화하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다음 II장은 전쟁/제노사이드에서의 젠더 연구의 필요성과 기존 연구의 경향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III, IV장은 위의 연구 대상을 차례로 분석한 후, 마지막 V장에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II. 전쟁/제노사이드와 여성 연구 - 왜 젠더인가?

서구의 경우, 젠더 연구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젠더 역할의 변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주 논점은 전쟁 중의 여성의 노동 동원, 여성의 노동패턴의 변화, 전쟁 후의 재건론과 전통 강화, 여성의 근대화 등이었다.⁶⁾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홀로코스트의 경우, 1980년대에 이르러 젠더 이슈가 부상했다.⁷⁾ 젠더의 재발견은 1990년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과 르완다 제노사이드 이후였다.⁸⁾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르완다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남성에게 대한 집단학살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둘의 전쟁에서 성별에 따른 학살의 전략이 달랐고, 피해도 달랐으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했던 젠더의 경험, 특히 여성에의 폭력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화해와 상생』, 2008, 69쪽.

6) 예, William Chafe, *The American Woman: Her Chang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oles, 1920-19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Susan Hartman, *The Homefront and Beyond*, Boston: Twayne Publishers, 1982.

7) Elisa von Joeden-Forgey, "Gender and Genocide"; Donald Bloxham and A. Dirk Moses (eds), *The Oxford Handbook of Genocide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www.oxfordhandbooks.com)

8) Elisa von Joeden-Forgey, *ibid*, 2010.

왜 젠더일까? 젠더 연구자들은 우선 기존의 역사나 문화적 재현이 여성을 간과함으로써 과거의 진실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전쟁/제노사이드 역사에서는 남성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반면 여성의 경험은 거의 주변으로 밀려져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험은 남성의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이 있다. 홀로코스트의 경우에도 죽음의 수용소 감금 초기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학살당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부는 특히 잔혹한 고문을 겪은 후 학살당했다. 또한 여성은 사건의 각 과정에서 나치와 독일군을 비롯하여 동료와 소련군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⁹⁾ 그러나 기존 연구는 유대인이라는 인종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경험을 간과했다.¹⁰⁾ 또한 증언 영상인 <쇼아 Shoah>조차도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¹¹⁾ 호로위츠 (Horowitz)에 의하면, <쇼아>에서도 여성 증언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험을 남성이 대신 증언하는 등 여성이 실종되어 있다고 한다.¹²⁾ 또한 여성의 기억은 남성의 기억과 다르다.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여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거와 남성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¹³⁾ 즉 사건이 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전쟁/제노사이드의 과거와 현재를 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할 때, 여성 경험과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기억의 불완전한 전승뿐만 아니라 생존 여성의 상처마저 하찮은 것으로 정리되거나 여성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⁹⁾ Elisa von Joeden-Forgey, *ibid*, 2010, pp.4-5.

¹⁰⁾ Joan Ringelheim, "Preface to the Study of Women and the Holocaust", *Contemporary Jewry* 17, 1996, p.1.

¹¹⁾ 쇼아 (Shoah, 히브리어로 '절멸'을 의미)는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에 관한 다큐멘터리이다. 란쯔만 감독이 8년간에 걸쳐 관련자를 인터뷰하여 편집한 것으로서 상영시간만 9시간 반이나 걸린다.

¹²⁾ Sara R. Horowitz, "Gender, Genocide, and Jewish Memory", *Prooftexts* 20(1-2), 2000, pp.158-190.

¹³⁾ Selma Leydesdorff, Luisa Passerini, Paul Thompson, *Gender and Mem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젠더 연구는 이처럼 과거의 이해와 전승 외에 제노사이드의 예방에도 기여한다. 보스니아 내전과 르완다 제노사이드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해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몸을 특정집단의 소멸 도구로 이용했다. 보스니아에서는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도구로 보고 집단 성폭력으로 ‘인종청소’를 시도했고, 르완다에서는 투치 (Tutsi)로 보이는 남성이 ‘르완다 애국 전선’ (Rwandan Patriotic Front) 소속이거나 앞으로 가담할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학살했다. 르완다에서도 사건 후기에 여성에 대한 강간과 강제결혼(축첩)이 횡행했는데, 이는 학살 의레이거나,¹⁴⁾ 이러한 행위가 여성을 투치 인종으로부터 “해방”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⁵⁾ 이처럼 가해자는 그 문화권에서 여성과 남성의 몸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정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워렌 (Warren)이 명명한 젠더사이드 (gendercide)가 발생한 것이다.¹⁶⁾ 그러므로 제노사이드의 연구에서 젠더의 관점은 제노사이드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고, 제노사이드를 예측하거나 예방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 의식에서 젠더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페미니즘, ‘아래로부터의 역사’적 관점 등과 결합하면서 연구의 영역도 넓어졌다.¹⁷⁾ 예를 들면, 보스니아뿐만 아니라 인도, 아일랜드, 방글라데시, 이란 등 각국에서 발생했던 전쟁/제노사이드에서 여성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논의되었다.¹⁸⁾ 연구자들은 피해 경험만이 아니라 가해, 구조, 저항 등 다양한 역할에 주목했고, 여성을 모성으로 한정지으려는 관점을 넘어서고자 했다. 홀로코스트 연구의 경우, 사건 전의 유대인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부터 시작하여 게토 및 수용소의 경험, 저항, 사건 후 정체성과 트

¹⁴⁾ Elisa von Joeden-Forgey, *ibid*, 2010, p.9.

¹⁵⁾ Adam Jones, “Gender and Genocide in Rwanda”,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4(1), 2002, p.75.

¹⁶⁾ Gendercide란 용어는 gender와 genocide를 합성한 용어로 특정 성에 대한 집중적인 대량학살을 의미한다. Mary Warren, *Gendercide: The Implications of Sex Selection*, Totowa, N.J.: Rowman & Allanheld, 1985.

¹⁷⁾ Anna Reading, *The Social Inheritance of the Holocaust: Gender, Culture and Memory*, Palgrave Macmillan, 2002, pp.38-39.

¹⁸⁾ Ronit Lentin (ed), *Gender and Catastrophe*, New York: Zed Books, 1997.

라우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¹⁹⁾ 또한 젠더의 관점으로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 작품과 기념관 등에 대한 내용분석도 시도되었다.²⁰⁾ 생존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억의 전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²¹⁾ 특히 전쟁/제노사이드에 있어서의 성폭력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매키논 (MacKinnon)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은 제노사이드와 강간과의 관련성을 치밀하게 다루었다.²²⁾

지난 20년간 이행기 정의 체계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젠더 연구는 이 분야로도 확산되었다. 보스니아 내전의 집단강간이나 일본군 군위안부 문제 등은 젠더 연구자들의 공론의 장이 되었다.²³⁾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여러 진상조사의 경우, 여성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벨/오루크 (Bell/ O'Rourke)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부터 시작하여 진상조사의 각 과정에서 이러한 딜레마가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⁴⁾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한국전쟁의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입하는 기존의 한국전쟁 이야기가 남성중심적임을 비판했다.²⁵⁾ 전쟁의 발발, 과정, 피해 등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태극기 휘날리며> 등의 전쟁영

19) Anna Reading, 2002, pp.39-47.

20) 예, Janet Jacobs, *Memorializing the Holocaust: Gender, Genocide, and Collective Memory*, London: I.B. Tauris, 2010; Shauna Copeland, "Double Victims: Fictional Representations of Women in the Holocaust", *Inquiry* 4, 2003; Barbie Zelizer, "Gender and Atrocity: Women in Holocaust Photographs", Barbie Zelizer (ed), *Visual Culture and the Holocaust*,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21) Marianne Hirsch,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2012; Marianne Hirsch and Valerie Smith, "From Postmemory to Collective Cultural Memory", *Signs* 28(1), 2002, pp.1-20.

22) Catherine A. MacKinnon, "Turning Rape into Pornography: Postmodern Genocide", *MS* 5, 1993, pp.24-30; Alexandra Stiglmeier (ed), *Mass Rape: The War against Women in Bosnia-Herzegovina*,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4.

23) Ann Rigney, "Reconciliation and Remembering: (how) Does it Work?", *Memory Studies* 5(3), 2012, pp.251-258.

24) Christine Bell and Catherine O'Rourke, "Does Feminism Need a Theory of Transitional Justice? An Introductory Essay",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1, 2007, pp.23-44.

25) 이입하, 『한국전쟁과 젠더: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12-16쪽.

화에서도 여성이 주변으로 밀렸음을 지적했다. 이입하는 그 이유로 권력 관계에서 여성이 ‘타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험은 기록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까닭으로 보고 있다.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전쟁의 또 다른 단면을 이해하려는 작업은 역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사회학, 문학, 영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함한희는 이러한 연구들이 구술, 심층면접, 사료분석 등을 통해 ‘여성에게 미치는 전쟁의 의미’, 여성의 경제활동, 지위향상, 가족의 변화, 여성의 삶의 양상 등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²⁶⁾ 이러한 주제 외에도 여성 이데올로기, 문화적 재현 등에 관한 연구들도 한국전쟁의 또 다른 역사와 서사를 전승하고 있다.²⁷⁾

그렇다면, 한국전쟁을 제외하면 최고로 많은 민간인 사망자 수를 기록한 4·3의 경우, 젠더에 관한 관심은 어떠한가? 4·3 연구에서 여성을 주제로 내건 학술대회가 2013년에 최초로 개최될 정도로 학계에서의 관심도 낮고, 저서는 없으며, 논문 수도 적다.²⁸⁾ 이는 4·3 연구에서도 여성 연구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여전히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림화/김순희를 비롯한 소수의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고유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구술, 생애사 등의 접근 방법으로 “역사의 총체성의 복원”을 주장한바 있으나, 4·3 연구에서 여전히 미개척 영역이다.²⁹⁾

26) 함한희, 「한국전쟁과 여성: 경계에 선 여성들」, 『역사비평』 91, 2010, 22-52쪽.

27) 여성이데올로기에 관한 글의 예로는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2006, 7-48쪽; 허윤,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 『여성문학연구』 21, 2009, 93-124쪽 등이 있다. 문화적 재현 연구의 예로는 김형근, 「한국전쟁사진에 나타난 여성」, 『언론과학연구』 11(2), 2011, 123-145쪽; 황혜진, 「1950년대 한국영화의 여성재현과 그 의미」, 『대중서사연구』 18, 2007, 7-33쪽 등이 있다.

28) 2013년 11월 1일, 제주대학의 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가 그 것이다. 1998년 제주4·3 제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에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이 주요 분과의 하나였으나 학술대회의 명칭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 외 2007년 4월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4·3과 여성」 인권포럼을 개최했고, 2011년 11월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 주최로 「제주 4·3과 여성 수난사」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다.

29) Rimwha Han and Soonhee Kim, “Jeju Women’s Lives in the Context of the

이제 이 시점에서 4·3의 공식역사에서 여성의 어떤 경험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경험은 논의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젠더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젠더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4·3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정치적 제노사이드의 특징과 그 후유증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의 경우와도 다르므로 지역에서의 젠더 관계의 변화, 가족의 재형성, 마을 공동체 변화 등 제주학 연구에도 기여할 것이다.

Ⅲ.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여성의 역사

진상조사보고서는 진상규명운동의 결실로 한국역사상 과거 청산의 첫 공식보고서이다. 제주4·3특별법 1조 (목적)는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 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이 목적에 부합하여 이미 규명된 사실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문헌 발굴 및 증언 자료를 확충하여 사건의 배경, 전개과정, 피해상황 등을 체계화했다. 그 결과 4·3의 새로운 공식역사의 교과서로 등장했고, 지난 20여년간 전 세계에 유행처럼 퍼졌던 이행기 정의 관련 작업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³⁰⁾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폭동론’ 지지세력의 반론에 의한 현실적 타협, 진상조사 자체의 제약 등으로 이 보고서는 나름의 한계를 드러냈

Jeju April 3rd Uprising”, *Asian Women* 17, 2003, pp.21-37; 이정숙, 「제주 4·3 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 쪽; 이정주,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 『제주도연구』 17, 2000, 52-53쪽.

30) Hunjoon Kim, “Seeking Truth after 50 Years: The Nation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4·3 Ev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3, 2009, pp.406-423.

다. ‘정명 만들기 유보’, ‘항쟁 기억의 배제’, ‘학살책임에 대한 미규정’,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³¹⁾ 특히 양정심은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평범한 도민들의 항쟁의 기억이 제외되었음을 비판했다. 박찬식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로서 무장대의 실상, 국가권력의 개입 과정, 집단학살의 실상 등을 지적했다. 이 장에서는 이 보고서의 또 다른 한계인 여성 기억의 주변화를 지적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지 과거의 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신장 등 미래지향적 가치도 고려한 것이다.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은 미래의 여성인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진상조사보고서의 젠더 분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의 젠더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젠더 관련 내용의 비중이 적고, 여성이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겪게 되었는지 그 맥락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존의 진상규명운동에서 여성 관련 증언이나 문서가 있었고, 이러한 자료는 주로 진상조사보고서의 집필자에 의해 발굴되었다.³²⁾ 그러므로 기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여성의 기억이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의 어떤 경험이 기록으로 남았는지도 점검하고자 한다.

우선 진상조사보고서는 이미 여러 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인 4·3특별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³³⁾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4·3은 특별법 상, ‘항쟁’, ‘국가폭력’, ‘인권유린’, ‘대학살’, ‘양민학살’ 등 기존에 제기된 명칭이 아닌 ‘사건’으로 명명되어 있다. 즉 이념적 갈등이나 사건의 책임과 무관한 용어를 쓰고 있다. 또한 4·3의 정의도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31)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8, 513-520쪽; 양정심, 「배제된 기억-제주 4·3항쟁의 역사」, 『4·3과 역사』 6, 2006, 55-73쪽.

32) 김종민, 양조훈 등의 4·3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민일보4·3취재반으로 활동하면서 7,000여명의 관련자를 취재하는 등 진상규명의 획기적 역할을 담당했다. (『4·3은 말한다』 1-5, 전예원, 1994-1998).

33) 4·3특별법 제정 과정 및 한계에 대해서는 Hunjoon Kim, 2009, pp.408-411을 볼 것.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내려졌다 (보고서, 43-44). 여기서도 소요 사태, 무력충돌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건의 원인보다 주민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진상조사의 목적은 위와 같이 정의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규명해야 할 내용은 “말발배경, 전개과정,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되 특히 주민 희생 등 인권침해 규명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 (44).

이러한 역점은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의도하지 않게 주변화시켰다. 먼저 증언자의 선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특이한 출신성향”의 경험자, “특정 사건”이나 “피해가 심한 마을” 출신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이러한 증언자 선정의 기준에서 여성은 선택되기 어려웠고, 여성의 일상적 경험은 ‘기록할 만한’ 증언으로 채택되기 어려웠다.³⁴⁾ 따라서 503명의 증언자는 출신성향으로 분류되었고, 성별은 표기조차 되지 않았다. 출신성향은 군인, 경찰, 학생, 농어업, 주부, 피난입산, 우익단체, 좌익단체, 공무원, 회사원, 교원, 미군인, 재일동포 등 13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증언자는 ‘주부’인 39명뿐이다. 그 외 분류에서는 남성뿐이거나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증언자의 선정 기준과 더불어 여성 증언자의 비율이 낮음으로써 다양한 여성 이야기를 채록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었다.

또한 주민희생 규명에 역점을 둔 진상조사는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경험에 대한 관심을 축소시켰다. 4·3 대학살의 원인 규명을 냉전의 관점에서 연대기별로 분석했으므로 미군, 이승만정권, 제주도, 경비대, 경찰, 서북청년, 남로당, 무장대 등의 집단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여성은 한 집단보다는 ‘주민’, ‘민간인’, ‘노약자’, ‘희생자’ 등의 집단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4·3의 세계사적 맥락을

34) 장지는 “기록할 만한” 증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할 수 없는” 여성의 고통도 희생임을 강조하고 있다. Jieun Chang, “National Narrative, Traumatic Memory and Testimony: Reading Traces of the Cheju April Third Incident, South Korea, 1948”, New York University 박사논문, Proquest, Umi Dissertation Publishing, 2011, pp.171-177.

이해하는데 공헌했으나, 평범한 일반 도민들의 항쟁에 관한 기억은 상대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웠고, 그 중에서도 여성의 활동에 대한 기억은 더욱 드러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무장대에 관한 부분에서는 무장대 수, 구성원, 조직, 병력, 봉기배경, 경찰지서 피습 등이 정리되었다 (167 - 188). 그러나 여기에서 무장대에서의 여성의 비율과 같은 기본적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인용된 자료에 의하면, 무장대에서는 부인부 (182),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는 여성부 (183), 무장대의 관련조직으로는 민주여성동맹이 있는 등 여성조직이 존재했다 (185). 그러나 인용 외에 그 조직에서 여성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기존 자료에 의하면, 무장대에 속한 여성들은 식량보급, 빠라살포, 선전활동, 연락 등을 맡았다고 한다.³⁵⁾ 그러므로 보고서에서 이러한 여성의 경험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진상조사가 희생에 초점을 맞춘 것 외에도 여성의 활동에 대해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5.18 민주화운동에서도 여성의 항쟁활동은 과소평가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성의 투쟁은 중요하게 다루어진 반면 여성의 주 활동인 취사, 모금, 물품 접수, 홍보활동 등은 낮게 평가되어 항쟁의 기억에서 제외되었다.³⁶⁾ 항쟁의 기억뿐만 아니라 4·3 진상조사는 기타 좌우익 단체에서의 여성의 활동, 선무공작 등 정부편의 활동 등 다른 종류의 활동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진상조사에서 역점을 둔 주민의 희생 편에서는 여성의 경험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을까? 또 어떤 희생이 부각되고 있을까? 먼저 4·3특별법에 의한 ‘희생자’의 규정을 보면,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 되어있다.³⁷⁾ 희생에 역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희생자의 규정 자체는 희생의 범위를 축소화시켰다. 특히 이 범위를 벗어난 여성의 피해 경험은 ‘희생’으로 기록되기 어려웠다. 4·3특별법뿐만 아니라 다른 이행기 정의 법안도 여성의

35) 이정숙,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2003, 10 - 22쪽을 볼 것.

36) 강현아, 「5·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한국여성학』 20(2), 2004, 5 - 40쪽.

37) 2007년 개정법에는 수형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폭력 등 여성의 인권유린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성폭력 등이 희생의 규정에서 제외되곤 했다.³⁸⁾

진상조사보고서는 이러한 희생의 개념을 토대로 집단학살과 이에 따른 인명피해 실태 파악에 주력했다. 물적피해 상황도 정리했지만, 집단학살, 도피자가족, 자수자, 함정도벌, 피난입산자, 보복살상, 무장대의 살상 등 여러 상황에서의 학살과 살상 중심으로 정리했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사건에도 예비검속자의 처형과 형무소 재소자의 희생 등 인명피해에 치중했다. 이러한 규명 방식은 4·3의 전개과정에 따른 집단적 인명피해를 파악하는데 기여했지만, 성별에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사망자 수 (369), 여성 수형인 (469), 여성의 학살, 수감 (예, 297, 419, 457) 등 여성 관련 희생을 언급했지만, 이보다 여성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비무장 민간인” (286), “노인과 부녀자” (387), “노약자” (예, 314, 379, 405, 410) 등 과잉진압에서의 희생자의 한 구성원으로 주로 표기했다. 남성의 경우에도 “젊은 청년” (275, 314), “젊은 남성” (293) 등의 구별 외는 거의 “주민” (예, 299-302, 326)으로 표기했다. 즉 젠더와 무관한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여기서 랑거 (Langer)의 주장처럼 “고통의 보편성” 앞에 젠더의 구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³⁹⁾ 그러나 홀로코스트나 4·3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학살당한 맥락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 제주도의회 신고서에 의하면 남성이 9,637명, 여성이 2,574명이 사망했다 (369). 그리고 대다수가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에 정부의 강경진압 정책에 따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희생당했다 (293). 이러한 무차별 학살에서도 남성이 더 많이 학살당했고, “주민” 중에 남성이 주로 ‘자수사건’ 등에, 여성이 주로 ‘도피자가족’의 대살 대상으로 학살당했다 (299). 수의 차이뿐만 아니라 죽음의 맥락도 일정부분 달랐다. 여성의 죽음은 개인의 ‘죄’보다 단지 총살자나 도피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신행해졌다. 이후 선무공작 시에도 귀순자 중 “여자, 어린이, 노인은 대부분 피난민으로 분류”되어 “철저히 검색”되고 “교육”당한 남성과 서로

³⁸⁾ Christine Bell and Catherine O'Rourke, p.44.

³⁹⁾ Lawrence Langer, “Gendered Suffering? Women in Holocaust Testimonies”, Ofer and Weitzman (eds), *Women in the Holocau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p.362.

다른 희생을 겪었다 (330).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가해자가 성별에 따라 진압 전략을 다르게 구사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여성이 겪은 피해와 그 맥락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도피자가족 살상’ 실태, ‘여성고문’ 실태 등이다. 도피자가족 살상은 소개령 이후, 주로 청년이 도피한 상황에서 아내 등 집에 남아있던 가족이 대신 죽는 ‘대살’이다 (391). 보고서는 사례를 통해 ‘대살’ 대상 자로서의 여성의 공포, 피신, 학살 등 여성이 겪은 피해를 드러냈다 (391-400). 여기서 진압군의 잔혹 행위로 인해 임신부와 아기 어머니가 겪은 모성 파괴의 고통을 예시했다. 또한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이야기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노리개” (397) 노릇을 거부한 한 도피자 가족에 대한 증언은 여성이 성폭력과 학살의 이중위험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한 보복으로 대한청년단 여자대원에게 철창으로 찌르라고 명령함으로써 여자대원에게 폭력을 강요했고, 대원들은 오랜 고통에 시달렸다 (396). 이러한 사례는 4·3에서 성폭력, 대살, 학살 등 알려진 피해 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여성 피해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보고서는 가족이 도피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여성이 겪은 고유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1949년 1월 무렵의 축성 작업에 “주로 여성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이 동원되어 고난을 겪었다 (314). 또한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서의 고통은 정신병 혹은 화병으로 번져 고통 끝에 사망하기도 했다 (402-403, 418). 이러한 2차 희생의 사례는 생존 여성이 주로 겪은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또한 여성이 겪은 성폭력 피해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례는 여성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토벌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386). 예를 들면, 탁성록 등은 도민을 “비위에 거슬리면 빨갱이라고 몰아” 죽이고, “금품갈취와 고문” 등으로 괴롭히고, “부녀자 능욕을 일삼(은)” 권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382-385). 또한 토산리의 경우, 군인들은 젊은 남자와 “젊고 예쁜 여자”를 분리하여 감금, 총살시키는 “패륜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술하고 있다 (390). 보고서는 여성 폭력의 피해를 시사했으나 진압군의 가혹성에 비중을 두으로써 이러한 피해의 실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4·3의 경

우 보스니아 내전처럼 체계적인 집단강간은 없었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성폭력, 강제결혼, 강간학살 등 여러 형태의 여성 폭력이 적지 않았다.⁴⁰⁾ 이러한 한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희생’의 범위에 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았고, 상호검증 절차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희생을 별도로 기록한 것은 고문의 한 유형인 ‘여성고문’에의 조사이다 (493-495). 여성고문을 포함하여 고문실태 조사는 4·3특별법이 규정한 희생의 개념보다 훨씬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여성고문으로 여성이 겪은 성적 수치심, 성고문, 몸에 대한 폭력의 사례를 제시했다. 경찰이나 토벌군은 “옷을 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조장시키거나, 임신 부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성의 젖가슴과 국부 등 성기관을 고문하거나, 남자와 성교를 강요하는 등 성고문을 구사했다. 이 별도의 기록으로 여성만이 겪은 피해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사례수가 적어서 발생 상황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

이처럼 보고서는 ‘피해상황’ 조사에서 한계는 있었으나 여성이 겪은 고유한 피해도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성의 일상적 경험은 공식역사로 거의 선택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4·3 이후 주민이 겪은 연좌제 피해는 유형별로 정리되었으나, 여성이 겪은 생계노동과 재건활동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정부와 제주도당국의 재건사업은 소개되었으나 (360-362, 514-517), 재건사업을 상당부분 맡아야 했던 여성의 경험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억의 실종 또한 공공영역 중심의 역사적 서술방식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4·3의 진상조사보고서는 여성의 기억을 공식화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우선 여성의 좌우익 단체의 활동이나 개인의 활동 등 여성의 활동에 관한 부분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여성의 희생 중에서도 물리적 고문의 피해 사례 외 성폭력, 강제결혼 등 성과 밀접한 희생도 특별히 정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 중이나 사건 이후의 일상경험, 노동, 정신적 고통 등의 일상사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성 관련 피해 등은

40) 『4·3은 말한다』에서 밝힌 예만 하더라도 4권(1997)의 228, 234, 434쪽, 그리고 5권(1998)의 66, 101, 186, 288쪽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보다 ‘민간인’, ‘노약자’ 등 ‘억울한’ 희생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주로 접근했다. 그러나 이 적은 비중에서 보고서가 선택한 여성 피해의 사례들은 여성이 주로 겪은 희생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도피자가족으로서의 희생, 몸에 대한 각종 폭력, 2차 피해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기여와 한계는 II장에서 논의한 이행기 정의안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4·3특별법이 규정한 사건의 정의, 진상조사의 방향, 희생의 개념 등이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여성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므로 여성 연구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기존의 여성 연구의 빈곤도 보고서의 여성 비중을 낮게 만들었다. 그 결과, 여성은 독립된 집단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정부차원의 첫 공식보고서에서 주변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IV. 제주4·3의 여성 경험과 젠더 이슈

이 장에서는 4·3 관련 젠더 연구를 중심으로 여성의 기억의 역사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알려진 것처럼 4·3 연구는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접근했고, 주제도 배경, 원인, 전개과정, 피해, 담론, 기억, 수형인, 좌우익단체, 위령의례, 진실규명운동 등 매우 다양하다.⁴¹⁾ 그러나 이 다양한 연구에서 여성 관련 저서나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다. II장에서 요약한 것처럼 한국전쟁의 연구에서도 젠더 연구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4·3에서 여성 연구의 빈곤은 관련 연구자의 수도 적지만, 여성 연구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좁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연좌제의 피해를 겪었으므로 여성의 활동이나 성적 피해 경험은 공개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 여성들의 노동은 전통적으로 일상화되었으므로 생계노동과 재건활동도 4·3의 역사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41) 4·3 연구의 최근 정리는 허호준,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 출판부, 2013, 19-53쪽을 볼 것.

이처럼 여러 이유로 논문 수가 적고 한계는 있으나, 4·3 여성 연구 논문은 여성의 특정 경험과 기억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논문들은 여성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을 강조하고 또 기호화하고 있을까? 한편으로 어떤 기억은 망각되고 있을까?

여성 연구는 우선 여성의 저항, 활동, 혹은 항쟁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했다. 4·3 발발 초기에 여성도 동참했고,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활동한 부분을 강조했다. 한림화/김순희는 제주 여성, 특히 잠수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수탈에 대해 저항하는 등 제주 여성의 강함을 보여주하고자 했다.⁴²⁾ 이들에 의하면, 4·3동안 일부 여성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위대 혹은 무장대에 음식과 물자를 제공했다. 특히 어떤 여성들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피난입산자나 무장대를 도왔다. 반면 또 다른 여성들은 우익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경찰의 뒷바라지도 감당하곤 했다. 한림화/김순희는 관련 자료를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0여 마을의 여성 150여 명으로부터 수집함으로써 대안의 접근 방법을 활용했다. 이정숙 또한 해방 전후의 여성활동부터 여성사를 시작하는 등 여성의 항쟁성을 강조했다.⁴³⁾ 해방 전 야학, 해방 후 여성단체의 가입, 3.1절 시위 참여, 대표자의 활동과 행방, 여성 동맹원의 활동 등 참여자의 다양한 활동에 주목하고자 했다.

위의 글들과 또 다른 논문들은 여성의 활동과 더불어 여성의 고유한 피해도 논의했다. 토벌군 등 남성에게 의한 성폭력, 강제결혼, 성고문 등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이 그것인데, 사례로 제시하거나 유형을 보여주거나 이 현상을 해석하고자 했다. 우선 오금숙은 인권의 입장에서 여성피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례를 제시했다.⁴⁴⁾ 오금숙은 여성의 수난을 1) 성폭력, 2) 강제결혼, 3) 연좌제, 호적문제, 생존노동 등으로 분류하여 각종 여성피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의 제시로 여성들이 성희롱, 성폭행, 나체고문, 강제성교, 강간 등을 겪었고, 강제적으로 배우자나 둘째 부인이 되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잔혹한 죽음으로 이어졌음이 드러났

42) Rimwha Han and Soonhee Kim, *ibdi*, 2003, pp.21 - 37.

43) 이정숙, 앞의 글, 2003.

44)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와 비평사, 1999, 236 - 256쪽.

다. 또한 4·3 이후에도 여성들은 생활고와 더불어 연좌제 피해나 ‘폭도’라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으며, 때로는 호적상의 문제로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과거들이 확인되었다.

오금숙의 인권유린의 폭로에 이어 김성례는 이러한 유린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⁴⁵⁾ 김성례는 전쟁/제노사이드에서의 성폭력의 보편적 원인과 4·3만의 특수한 원인을 결합하여 4·3의 성정치학을 이끌어냈다. 김성례에 의하면, 여성의 몸은 빨갱이 집단을 상징하므로 반공국가의 정립 과정에서 국가폭력이 행사되는 장소로 변했다고 본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빨갱이 증오”와 “남성의 성적 판타지” (162)가 교차하여 나체고문, 임신부 살해, 강간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즉 여성의 체험이 4·3의 다중적 폭력을 집약하고 있는 기호인 셈이다.

김성례의 연구에 영향을 받은 장지은은 그의 박사논문에서 4·3의 성정치학을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⁴⁶⁾ 장지은은 먼저 진상조사에서 화해의 담론이 여성의 고통을 더욱 어둠 속으로 남긴 것을 지적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고통이 현재까지 지속됨을 강조했다. 그리고 몸에 대한 피해를 성폭력, 대살, 여성 성기관에 대한 고문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폭력이 무엇을 기호화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장지은에 의하면, 강간 등의 성범죄는 식민지국가로서의 경험, 반공국가 건립에의 욕망, 가부장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경멸, 남성성의 증명과 남성간의 연대의식 등으로 빚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되지 않음으로써 여성에게 “사회적, 정서적 죽음”을 가증시켰다고 본다 (192). 대살 또한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며, 여성 성고문은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감 등에서 비롯되었다. 장지은은 이러한 설명에서 결국 여성의 희생은 ‘빨갱이 섬’ 주민 전체에 대한 전략적 폭력의 결과이며, 남성화된 한국 민족주의 건립을 목표로 한 국가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즉 여성의 몸의 수난은 제주도민 전체의 희생을 표현하는 것이며, 남성화된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본다. 따라서 장지은은 여성의 희생을 4·3의 진상

45)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와 비평사, 1999, 154-172쪽. 이 글의 수정 논문은 김성례,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제주 4·3 학살을 중심으로」, 『혼적』 2, 2001, 263-292쪽.

46) Jieun Chang, 2011, *ibid*, pp.161-218.

조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현재진행 중인 사실로 주장하고 있다.

김성례와 장지은의 성정치학은 여성의 몸에 대한 기억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는 강제결혼, 전락결혼 등 또 다른 형태의 여성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또 4·3에서 어느 정도로 성폭력, 강제결혼, 성고문 등이 발생했고,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등 실증 조사가 부족하다.⁴⁷⁾ 오금숙, 이정숙, 이정주, 양정심 (2008) 등의 글에서는 성폭력의 사례 외에도 서북청년단 등의 강제결혼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⁴⁸⁾ 어느 정도이며, 어떤 상황이었으며, 어떤 후유증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여성 연구는 성폭력 등 여성의 극단적 인권유린 사건을 강조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으나, 실증적 조사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성폭력 등 여성만이 겪는 희생뿐만 아니라 집단학살의 경우에도 여성과 남성의 피해과정이 달랐다. 이정숙은 여성이 주로 학살당한 경우로 1) 사건 후기에 마을에 남아있던 여성에의 무차별 학살, 2) 도피자가족으로의 보복학살, 성관계 거부에의 보복학살, 무장대에 의한 민보단 및 주민 학살, 3) 예비검속시 남성의 대리 수감 후 처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는 민간인에 대한 학살일지라도 여성의 경우 남성과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 여성 연구에서 강조하는 기억은 4·3 이후 여성의 노동 강도와 여성간의 연대이다. 이정주와 김성례 외 (2001)는 4·3 이후 한 중산간 마을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노동과 그에 따른 경제력의 차이를 추적했다.⁴⁹⁾ 이정숙은 4·3 이후에도 여성이 생존노동, 고문 후유증, 연좌제 등에 시달렸음을 지적했다. 반면 한림화/김순희는 여성이 재건의 주체로서

47) 성폭력, 성고문, 강제결혼 등은 정확히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기도 어렵거니와 주위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로 증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증언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분류해 보거나, 익명성을 보호한 후 증언을 더 채록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용소내의 성고문 등 특정 상황과 연관시키거나, 시기별로 나누거나, 가혹성의 정도와 연관시켜 보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48) 양정심, 『제주 4·3항쟁 -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207 - 214쪽.

49) 김성례, 유철인, 김은실, 김창민, 고창훈, 김석준, 「제주 4·3경험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한국 인류학』 34, 2001, 89 - 137쪽.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상호부조를 통해 마을의 도로와 학교 등을 복원하는 등 마을발전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이정주, 김성례 외의 두 연구에서도 마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복원한 ‘홀어머넌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했던 위의 글들은 4·3의 전후에 여성이 실제로 겪었던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다른 글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여성이 4·3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권귀숙은 생존 여성의 기억이 가족의 죽음, 가족생계 노동 등 가족중심적임을 논의했다.⁵⁰⁾ 유철인은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텍스트를 통해 여성이 4·3의 경험을 가족생활과 연관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분석했다.⁵¹⁾ 특히 유철인은 이 여성이 4·3의 고통을 출산의 보람으로 의미를 전환시키는 주체성 확립에 주목했다. 김성례 (1991)도 4·3 이후 혼자 살아온 심방의 생애사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의 인식을 강조했다.⁵²⁾ 반면 박경열은 두 여성의 생애담에서 기억의 차이를 읽고 있다.⁵³⁾ 두 여성 모두 4·3은 가족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한 여성은 억울한 죽음으로 기억하고 다른 여성은 폭도가족으로서의 희생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젠더에 따라 4·3의 경험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의 4·3을 보여주고 있다.

기억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4·3의 문화적 재현물에서의 젠더 이미지도 분석이다. 권귀숙은 4·3 다큐멘터리에서 여성은 결백함이나 상처의 기호로 부각되고, 스토리에서는 주변적인 위치에 배치되어 있음을 지적했다.⁵⁴⁾ 남성은 상대적으로 사건의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3을 증언하고 해설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박미선은 현기영의 소설이 여성과 어머니의 다중적 고통을 재현하고 있음을 논의했다.⁵⁵⁾

50) 권귀숙, 「4.3의 사회적 기억」, 『기억의 정치』 2장, 문학과 지성사, 2006, 60-62쪽.

51) 유철인, 「구술된 경험 읽기: 제주 4.3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1), 2004, 3-39쪽.

52) 김성례,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한국여성학』 7, 1991, 7-43쪽.

53) 박경열,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 김인근과 현신봉의 생애담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논총』 47, 2009, 231-254쪽.

54) 권귀숙, 「대량학살의 기억과 젠더 이미지」, 『기억의 정치』 7장, 211-241쪽.

55) 박미선, 「4·3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가기」, 『제주작가』 7, 2001. 현기영의 <순이>

4·3 기억의 전승과 상처의 치유로 김성례 (1989, 1991)는 여성의 고통의례를 들고 있다.⁵⁶⁾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기억과 원한의 감정을 고통을 통해 이어가고, 한편으로 그 상처를 치유 받았다고 한다. 다른 글에서도 김성례 (2004)는 여성들이 ‘할망당’ 신앙을 복귀하여 생존의 연대를 일구어나갔다고 한다.⁵⁷⁾ 이 연구들은 고통이나 토착신앙으로 4·3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한편으로 생존자의 고통을 씻어가는 4·3 이후의 제주 여성들의 삶의 한 부분을 조명하고 있다.

요약하면, 4·3 관련 여성 연구들은 진상조사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여성의 활동, 희생, 노동, 기억, 의례 등을 표출했고, 이러한 경험이 생존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의 희생인 성폭력 등은 국가폭력의 기호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자료나 관심의 부족으로 여성 개인이나 집단의 또 다른 목소리들을 드러내지 못했다. 정신적 후유증, 가족의 해체와 재형성 과정, 엘리트와 일반 여성간의 차이, 마을간 차이, 4·3 이후 노동과 일상생활, 한국전쟁 과정에서의 변화, 국내의 이주 여성의 삶, 다양한 장르에서의 젠더 재현 등 많은 연구 과제들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V. 젠더 연구의 방향

이 글은 4·3의 새로운 공식역사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전쟁/제노사이드의 역사에서 여성의 이야기는 거의 간과되어 왔다. 이행기 정의에 따른 여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조차도 여성 인권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최근에 이르러 이 영역에도 젠더 연구가 필요함을 동감하면서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삼촌>과 <해룡 이야기>를 분석했다.

- 56) 김성례, 「원혼의 통곡: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제주 무속」, 『제주도연구』 6, 1989, 71-76쪽; 김성례, 「제주 무속: 폭력의 역사적 담론」, 『종교신학연구』 4(1), 제주도연구회, 1991, 9-28쪽.
- 57) 김성례, 「제주 4.3과 여성경험: 폭력의 기억에서 생존의 연대로」, 5.18연구소 학술총서 4, 『여성과 민주화운동』, 경인문화사, 2004, 285-317쪽.

다. 한국전쟁의 경우에도 아래로부터의 역사, 구술사, 생애사 등의 접근 방식과 더불어 젠더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4·3 연구에서는 젠더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낮다.

4·3의 진실찾기가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승되지 않았다. 젠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4·3특별법에 의해 조사의 범위와 희생의 개념이 축소된 까닭이다. 여성보다는 노약자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면서 여성의 활동은 거의 기록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희생도 가해자의 가혹성의 사례로 제시되었다. 여성 관련 논문들은 성폭력, 여성 활동, 기억의 차이, 여성 의례 등 주요한 주제를 다루었으나 질적/양적 자료의 수집, 검증, 분석에서 한계가 드러났고, 그 외 여성의 활동, 노동, 가족의 해체와 재형성, 젠더 관계, 트라우마 등의 주제를 치밀하게 추적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젠더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⁵⁸⁾ 4·3에서 여성의 경험이 남성과 다르고, 특히 남성의 부재시 여성들은 다양한 일들을 겪었다. 진압군은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학살과 인권유린을 범했으며, 피해자도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고 희생을 치렀다. 그러므로 4·3의 온전한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젠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여성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⁵⁹⁾ 젠더 연구는 여성의 기억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전쟁/제노사이드의 각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 맥락과 연관짓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 연구뿐만 아니라 남성 연구도 필요하다. 가해집단의 남성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제노사이드에서 남성으로서 겪은 학살과 피해 경험이 또 다르기 때문이

⁵⁸⁾ 4·3 과제에 관한 기존의 글과 최근의 허호준 (2013)의 글에서도 여성 연구가 새로운 과제로 선정되지 않았다.

⁵⁹⁾ 링겔하임 (Ringelheim)은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여성간의 배려와 연대가 생존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글에서 이러한 문화페미니즘의 관점을 비판했다.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에 주목한 결과 큰 틀에서의 여성의 희생과 여성의 삶의 다양성 등을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한다. Joan Ringelheim, "Women and the Holocaust: A Reconsideration of Research", *Signs* 10(4), 1985, pp.741-761.

다.⁶⁰⁾ 남성도 4·3에서 강제성교 등 성고문의 피해자였고,⁶¹⁾ 한국전쟁 시에는 참전, 예비검속, 수형인 행방불명 등의 유별난 수난을 겪었다.

다음으로 4·3 연구에서 ‘희생’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기 정의안의 한계에서 벗어나 여성의 인권유린도 희생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여성 희생자의 존엄성이나 사생활보호 등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먼저 요구된다. 그리고 기존의 구술 자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재분석해야 할 것이다.⁶²⁾ 피해의 빈도, 유형 (예, 강간, 대살, 강제결혼 및 축첩, 성고문, 성희롱, 강간살인, 정략결혼 등), 강도 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가해자의 전략방식, 2차 피해, 후유증과 삶의 변화 등도 토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여성을 전쟁/제노사이드의 “보편적인 약자”로서 “이중위험”의 피해자라는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⁶³⁾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여성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역사’ 개념을 활용하여 4·3 전후의 여성의 일상생활, 참여, 활동, 생계노동 등의 실증적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이론화 작업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층의 여성에 대한 생애사, 가족사, 마을사 등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4·3 중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으로 인한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후방으로서의 생활, 피난민과의 관계, 교회의 영향, 근대화, 전쟁미망인의 발생 등 일상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야 할 것이다. 4·3 이후, ‘여성의 섬’에서의 젠더 관계의 변화, 여성노동 패턴의 변화, 가족과 마을의 재형성 등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 외 다른 사회에서의 전쟁/제노사이드, 그리고 한국전쟁과의 비교

⁶⁰⁾ Elisa von Joeden-Forgey, 2010.

⁶¹⁾ 강제성교인 경우, 남성이 겪는 수치심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Karina Oberune, *Gender Based Violence: Genocide in Rwanda*, GRINVerlag, 2010.

⁶²⁾ 『이제사 말함수다』 (제주4·3연구소, 한울, 1989) 등 기존 증언 자료 외에도 4·3 친인 증언채록 자료집 등 최근 구술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김동전, 「제주 4·3 역사자료의 수집 현황과 과제」,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 출판부, 2013, 135-164쪽 참고.

⁶³⁾ Ronit Lentin, “Introduction: (En)Gendering Genocides”, Ronit Lentin (ed), 1997, p.14.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4·3에서의 여성 폭력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예방 방안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3의 문화예술적 재현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작품은 후세대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운동의 역사에서의 여성 참여와 성격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행기 정의와 여성 인권과의 연결도 보다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젠더 연구는 4·3의 역사, 전쟁/제노사이드 이론, 페미니즘 등 학계뿐만 아니라 4·3 평화공원 제3차 사업 등 가시적인 분야에서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아, 「5·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한국여성학』 20(2), 2004.
-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2006.
- 김동전, 「제주 4·3 역사자료의 수집 현황과 과제」,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 출판부, 2013.
-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2006.
-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와 비평사, 1999.
- 김성례, 「원혼의 통곡: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제주 무속」, 『제주도연구』 6, 1989.
- 김성례, 「제주 무속: 폭력의 역사적 담론」, 『종교신학연구』 4(1), 1991.
- 김성례,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한국여성학』 7, 1991.
- 김성례,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제주 4·3 학살을 중심으로」, 『혼적』 2, 2001.
- 김성례, 「제주 4·3과 여성경험: 폭력의 기억에서 생존의 연대로」, 5.18연구소 학술총서 4, 『여성과 민주화운동』, 경인문화사, 2004.
- 김성례, 유철인, 김은실, 김창민, 고창훈, 김석준, 「제주 4·3경험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한국인류학』 34, 2001.
- 김형곤, 「한국전쟁사전에 나타난 여성」, 『언론과학연구』 11(2), 2011.
- 박경열,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 김인근과 현신봉의 생애담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논총』 47, 2009.
- 박미선, 「4·3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가기」, 『제주작가』 7, 2001.
-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8.
- 양정심, 「배제된 기억 - 제주 4·3 항쟁의 역사」, 『4·3과 역사』 6, 2006.
- 양정심, 『제주 4·3항쟁 -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와 비평사, 1999.
- 유철인, 「구술된 경험 읽기: 제주 4·3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1), 2004.
- 이임하, 『한국전쟁과 젠더: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 이정주, 「4·3에 관한 생애사로 엮은 제주 ‘호미’마을의 역사」, 『제주도연구』 17, 2000.
- 이정숙,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논문, 2003.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5, 전예원, 1994-1998.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화해와 상생』, 2008.
-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1989.
- 함한희, 「한국전쟁과 여성: 경계에 선 여성들」, 『역사비평』 91, 2010.
- 허윤,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 『여성문학연구』 21, 2009.
- 허호준,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 출판부, 2013.
- 황혜진, 「1950년대 한국영화의 여성 재현과 그 의미」, 『대중서사연구』 18, 2007.
- Bell, Christine and Catherine O'Rourke, "Does Feminism Need a Theory of Transitional Justice? An Introductory Essa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1, 2007.
- Chafe, Henry, *The American Woman: Her Chang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oles, 1920-19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Chang, Jieun, "National Narrative, Traumatic Memory and Testimony: Reading Traces of the Cheju April Third Incident, South Korea, 1948", New York University 박사 논문, Proquest, Umi Dissertation Publishing, 2011.
- Copeland, Shauna, "Double Victims: Fictional Representations of Women in the Holocaust", *Inquiry* 4, 2003.
- Jacobs, Janet, *Memorializing the Holocaust: Gender, Genocide, and Collective Memory*, London: I.B. Tauris, 2010.
- Joeden Forgey, Elisa von, "Gender and Genocide", Donald Bloxham and A. Dirk Moses (eds), *The Oxford Handbook of Genocide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Jones, Adam, "Gender and Genocide in Rwanda", *Journal of Genocide Research* 4(1), 2002.
- Han, Rimwha and Soonhee Kim, "Jeju Women's Lives in the Context of the Jeju

- April 3rd Uprising”, *Asian Women* 17, 2003.
- Hartman, Susan, *The Homefront and Beyond*, Boston: Twayne Publishers, 1982.
- Hirsch, Marianne, *Family Frames: Photography, Narrative, and Postmem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Hirsch, Marianne,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 Hirsch, Marianne and Valerie Smith, “From Postmemory to Collective Cultural Memory”, *Signs* 28(1), 2002.
- Horowitz, Sara, “Gender, Genocide, and Jewish Memory”, *Prooftexts* 20(1-2), 2000.
- Kim, Hunjoon, “Seeking Truth after 50 Years: The Nation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4·3 Ev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3, 2009.
- Langer, Lawrence, “Gendered Suffering? Women in Holocaust Testimonies”, Ofer and Weitzman (eds), *Women in the Holocau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 Lentin, Ronit (ed), *Gender and Catastrophe*, London: Zed Books, 1997.
- Leydesdorff, Selma, Luisa Passerini and Paul Thompson, *Gender and Mem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MacKinnon, Catherine, “Turning Rape into Pornography: Postmodern Genocide”, *MS* 5, 1993.
- Oborune, Karina, *Gender Based Violence: Genocide in Rwanda*, GRINVerlag, 2010.
- Reading, Anna, *The Social Inheritance of the Holocaust: Gender, Culture and Memory*, Palgrave Macmillan, 2002.
- Rigney, Ann, “Reconciliation and Remembering: (how) Does it Work?”, *Memory Studies* 5(3), 2012.
- Ringelheim, Joan, “Preface to the Study of Women and the Holocaust”, *Contemporary Jewry* 17, 1996.
- Ringelheim, Joan, “Women and the Holocaust: A Reconsideration of Research”, *Signs* 10(4), 1985.
- Stiglmeier, Alexandra (ed), *Mass Rape: The War against Women in Bosnia Herzegovina*,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4.

UN Secretary General,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2004.

Warren, Mary, *Gendercide: The Implications of Sex Selection*, Totowa, N.J.: Rowman & Allanheld, 1985.

Zelizer, Barbie, “Gender and Atrocity: Women in Holocaust Photographs”, Barbie Zelizer (ed), *Visual Culture and the Holocaust*,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Abstract

Gender and Women's History: On the Jeju 4·3 Incident

Gwon, Gwi – sook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historical writings on the Jeju 4·3 events through the lens of gender. After reviewing gender issues in war/genocide studies,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examines what has been recorded about women and what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official and academic investigations of Jeju 4·3. The truth commission report largely overlooked women's experiences, especially women's active roles in resistance and reconstruction. Although the report addressed women's double jeopardy, it often presented sex-based violence as an example of the atrocities of the suppressor. The dilemma of the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about Jeju 4·3 such as the narrow concept of victim and the emphasis on objective evidence tended to undermine women's voices. There is little academic research on women's stories, but it tried to demonstrate women's unique experiences of resistance, sexual violence, network, ritual, and remembering, signifying women's bodies as sites of national violence. However, it still needs to articulate other gender issues and women's stories from diverse perspectives. This paper underscores the inclusion of women's history and narratives to better understand the past and prevent future genocides. It also suggests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for making women more visible and

applying gender to a different context.

Key Words : The Jeju 4·3 Incident, transitional justice, Official Investigation Report about the Jeju
4·3 Incident, women's history, gender issue

교신 : 권귀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E-mail : ggsoog@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 12. 30.

심사완료일 2014. 01. 28.

게재확정일 2014. 01. 31.